

老乞大語彙考(七)^{*}

- 問、從、從頭、客人、商量、敢 -

李陸禾^{**}

<목 차>

1. 緒論
2. 本文
 - 2.1 問
 - 2.2 從
 - 2.3 從頭
 - 2.4 客人
 - 2.5 商量
 - 2.6 敢
3. 結論

1. 緒論

《老乞大》는 高麗末부터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중국어 학습을 위해 편찬된 중국어회화 敎材이고, 中國의 元、明、淸의 여러 王朝를 거치면서 그 시대가 가지는 언어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改修刊行되어 다른 문헌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것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우리의 문헌이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를 두고 여러 차례 改修를 하고 간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近代漢語史 연구에 중요

* 이 연구는 2014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敎授.

한 자료인 동시에 漢語原文을 當時의 한글로 表音하고 對譯文을 병기한 諺解書들은 國語史 연구 자료이고 또한 近代漢語 口語연구에도 많은 가치를 지닌 중요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¹⁾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老乞大》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고²⁾, 또한 『老乞大·朴通事』에서 쓰이고 있는 語彙와 語法들은 일부 특정지역에서 통용되었고 심지어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蒙文直譯體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志村良治는 그의 저서에서³⁾ 『《老乞大》、《朴通事》 두 책의 언어는 주로 大都를 중심으로 한 山東、河北、遼寧 등의 북방 緣海地域에서 통용되었다. ‘知他’ ‘因此上’ 등의 용법 외에도 過去 漢語에서 본적이 없는 이른바 蒙文直譯體의 언어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11개의 個別의 事例를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志村良治가 提示한 11개의 個別의 事例에서 ‘知他’、‘因此上’、‘人名+上’、‘怎麼’、‘根底’ 등의 語彙를 선택하여 당시의 다른 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用例들과 상호 비교 등을 통하여 《老乞大》에서 쓰이고 있는 語彙와 語法들은 이른바 蒙文直譯體의 현상이 아닌 그 當時에 大都를 중심으로 北方地域에서 널리 쓰였던 漢語口語임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또한 《老乞大》가 反映하는 漢語의 성격을 규명하여 漢語史에서의 위치를 提高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련의 연구를 시도하였다.⁴⁾

1) 예를 들면 蔣紹愚는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2005)의 序文에서 『老乞大』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研究近代漢語的學者常常爲語料問題苦惱: 在唐宋時期, 反映口語的材料實在太少, 那些比較接近口語的材料也往往是文白攙雜。元明清時期反映口語的材料逐漸增多, 但像元代白話碑、《元典章》這樣的材料內容比較單一, 而《紅樓夢》《兒女英雄傳》這樣的作品也并非全是口語。從這方面講, 這套朝鮮時代漢語教科書對近代研究有其無可取代的價值。」

2) 近來 先學들의 활발한 연구에 老乞大·朴通事에 대한 評價는 提高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蒙文直譯體’라는 등의 老乞大·朴通事를 貶下하는 視覺을 볼 수 있다. 鄭光 譯註解題 《原本老乞大》(04年)의 序文에서 그러한 시각을 볼 수 있다: 「... 또 한 분의 토론자인 나가시마 교수가 <老乞大>의 中國語가 蒙文直譯體의 문장이어서 실제 회화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것은 3년 전에 일본 경도에서 <노걸대>에 대하여 발표할 때에 이미 거론이 되었다. ...」

3) 志村良治 著 江藍生 白維國譯 《中國中世語法史研究》: 「兩書의 語言主要通用于北方以大都爲中心的山東、河北、遼寧等靠海的地區。除了‘知他’ ‘因此上’等說法之外, 也出現了過去漢語裏沒有見過的所謂蒙文直譯體의 語法。」 中華書局, P.382.

4) 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39輯(2008).

本 研究는 바로 그 後續의 補完적인 성격의 것으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既存 『老乞大』의 諸諺解書와 譯註書 등을 참고하고 인용하면서 간혹 공감하기 어려운 註釋이나 잘못된 번역(諺解)을 볼 수가 있었다. 『老乞大』에 관한 연구를 振作시키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정확하고 바른 註釋과 번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譯註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語彙와 語句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다른 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用例와 先學의 연구 등을 詳考하여 바른 註釋과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語彙의 變化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本 研究는 現存의 最古本으로 보이는 1346년경 元나라 시대에 編纂된 《原本老乞大》(이하 《原老》)⁵⁾本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고, 1515년 崔世珍이 最初로 《老乞大》⁶⁾를 諺解한 《翻譯老乞大諺解》(이하 《翻譯老》)⁷⁾本과 그리고

拙稿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 25輯(2009).

拙稿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 41輯(2009).

拙稿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 43輯(2009).

拙稿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 44輯(2010).

拙稿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刊, 27輯(2010).

- 5) 《原本老乞大》는 1998년 경북대학교 南權熙교수가 최초로 古本《老乞大》를 發見 한 후, 정리를 거쳐 2000년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元代漢語本老乞大》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原刊老乞大研究》이라는 書名으로 각각 출판되었다. 2002년에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修訂本(鄭光 主編)을 다시 出版하면서 《原本老乞大》라고 改名을 하였다. 이에 或者는 ‘舊本老乞大’ 또는 ‘元本老乞大’, ‘古本老乞大’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최근 발견된 《原本老乞大》가 이른바 崔世珍이 《老乞大集覽》 등에서 언급한 ‘古本’, ‘舊本’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한 《老乞大》의 최초의 原本인지도 알 수는 없다. 다만 鄭光이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原本老乞大》라고 書名으로 解題와 譯註를 하였고, 본 논문도 鄭光 譯註解題의 《原本老乞大》(2004년, 김영사)에서 原文과 譯註를 참고하였으므로 이에 《原本老乞大》라는 書名을 쓰기로 하였다.
- 6) 《老乞大》(1480년)는 《原本老乞大》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최고본이었으나 《原本老乞大》本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老乞大》本은 ‘《原本老乞大》本의 改修本일 것이다’라고 하여 《刪改老乞大》 또는 《(修正本)老乞大》 등으로 부르고 있다. 《老乞大諺解》는 조선 顯宗(1670 전후) 때 朴世華 등이 《老乞大》本을 藍本으로 하고 《翻譯老乞大諺解》의 諺解를 改修한 新諺解本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老乞大》라는 서명을 그대로 썼다.
- 7) 《翻譯老乞大諺解》는 《老乞大》를 中宗10년(1515년) 崔世珍이 諺解한 것으로 上下 兩卷으로 名稱은 원래 그대로 《老乞大》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면 漢語本의 名稱과 구별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老乞大諺解》로 하면 重刊本과의 혼란이 생기므로 이에 四聲通解에 붙어있는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란 기록에 의지하여 《翻譯老乞大》로 通稱하게 된 것이다. 《老乞大》를 諺解한 또 다른 《老乞大諺解》本(1670年)이 있으나, 漢語本文의 내용은 일부 字形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翻譯老乞大》와 일치한다고 한다. 이에 本稿는 《老

제일 늦은 시기인 1761년에 改修된 《老乞大新釋》(이하 《老新》)⁸⁾ 등을 각각 선택하여 참고하였다. 즉 本稿는 老乞大系列書의 漢語 語彙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現存 最古의 《原老》本을 선택하였고, 그 中間의 改修本 가운데서 漢語原文에 대한 理解와 풀이의 편리함을 위하여 諺解本人 《翻老》本을 택하였으며, 제일 늦은 시기에 改修된 《老新》本을 선택하였다.

2. 本論

2.1 問

《原老》에서 '問字'의 출현은 총 18번으로, 그 가운데 '묻다'·'안부를 묻다'·'심문하다'·'따지다' 등의 動詞로 쓰인 用例는 아래의 예문(1~4번)에서처럼 총 12번의 用例를 찾을 수가 있다.

- 1) 有人問著，一句話也說不得時，教別人將咱每做甚麼人看？(《原老》 2a)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한마디라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 2) 早起晚夕休離了，煎湯煮水問候者。(《原老》 32b)
아침저녁으로 떠나지 말고, 약을 먹고 음식을 먹었는지 안부를 물어 보시오.
- 3) 驗了文引，仔細的盤問了，纔放過來。(《原老》 14b)
통행증을 검사하고, 자세하게 심문을 한 다음, 비로소 (국경을) 건너도록 허락합니다.

乞大》의 漢語原文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最初의 諺解本이고 원문의 번역이나 이해에 참고를 위하여 《翻譯老乞大諺解》本을 藍本으로 택하였다.

8) 《老乞大新釋》(1761年)은 《老乞大》의 改修本이다. 《老乞大》이후 약 300년 만에 改修되어 편찬된 《老乞大新釋》本은 상당한 語彙의 변화가 보이므로 이 또한 연구의 藍本으로 삼았다. 《老乞大新釋》보다 약 40년이 늦은 시기에 編纂된 《重刊老乞大》(1795年)本은 일부의 語彙가 《老乞大》시대와 回歸된 측면이 보인다는 見解가 있다.

4) 俺高麗體例, 親弟兄也不隔話⁹⁾, 姑舅兩姨更那裏問?(《原老》5a)

우리 고려의 예법은, 친형제간이라도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촌간인데 따질게 있겠습니까?

→ 我一們不會體例的人, 親弟兄也不隔話, 姑舅兩姨更那裏問。(《繙老》上 16b)

⇒ 這是我們不忌的人家, 親弟兄說話尚不計較, 況是姑舅兩姨的弟兄, 又何必理論啊?(《老新》5b)

《原老》에서 動詞로 쓰인 '問'字는 改修本인 《繙老》나 《老新》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위의 예문 4번에서처럼 《原老》에서 '상관하다', '따지다'¹⁰⁾ 등의 의미로 쓰인 '問'字가 《老新》(예문 4)번 '⇒표)에서는 '理論'¹¹⁾으로 改修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 5)번과 6)번은 '問'字가 《原老》에서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向' 또는 '跟'의 의미를 가지는 介詞로 쓰인 용례인데, 《原老》에서 총 5번의 用例를 찾을 수가 있다.¹²⁾

9) 原文 '隔話'에 대해서 許少峯은 《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 2008年, 630쪽)에서「回避的話, 諱言(꺼릴 것이 있어 감히 말을 못하거나, 말하기 꺼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許少峯의 이러한 설명은 다른 문헌에서의 用例를 제시하지 않고, 《老乞大》의 原文「我們不會體例的人, 親弟兄也不隔話, 姑舅兩姨更那裏問」을 用例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拙稿는 '隔話'에서의 '隔'은 '사이'를 두다의 '間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抑制하다'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이에 '不隔話'의 의미를 '말을 억제하지 아니하다', 즉 '말을 함부로 하다'의 뜻으로 풀이를 하였다.

10) 여기에서의 '問'字는 '管(상관하다)', '顧及(살피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元 無名氏 《延安府》 第三折:「張千, 你衙門首看着, 不問大小事務來告, 你不要攔當他。(張千 자네는 관아의 대문을 지키고 있다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고발하려는 자가 오거든 자네는 그를 막지 말게나.)」

11) '理論' 또한 '問'字와 같이 近現代漢語에서 '計較(시비를 따지다)' 등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는 어휘다. 《三邊平妖傳》八回:「我若掙挫性命回來, 却將你隱匿寶物事情, 敲皇城, 打怨鼓, 須要和你理論。(내가 만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돌아온다면, 보물을 은닉한 너의 일들을 임금에 상소하고 신문고를 쳐서라도 반드시 너와 시비를 따지고 끝장을 볼 것이다.)」

12) 本文에서 이미 언급을 하였듯이 《原老》에서 '問'字 출현 횟수는 총 18번이다. 그 중 動詞로 쓰인 用例가 12번, 介詞로 쓰인 用例가 5번이다. 그런데 문제는「咱每這裏當住馬絃者, 卸下行李, 這飯店裏去來. 問客, 先將一碗溫水來, 俺洗面皮」一句에서의 '問客'에 대한 처리다. 原文의 '問客, 先將一碗溫水來'에 대해서 改修本인 《繙譯老乞大》本에서는「過賣, 先將一碗溫水來, 我洗面(주인장! 먼저 물 한 대야 가져다주시오, 세면을 해야겠소)」라고 改修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問客'가 '過賣'로 改修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原文의 '問客'는 무엇을 말하는지 다른 문헌에서 그 用例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 5) 且休摘了鞍子, 你去問主人家, 索幾箇席子藁薦來, 就待箇茗帚來拂綽。(《原老》 19b)
아직은 안장을 벗기지 말고, 자네는 가서 집주인에게 돛자리와 멍석 몇 장을 달라고 하고, (가지고)오는 김에¹³⁾ 빗자루를 가져와 쓸도록 합시다.
→ 且休摘了鞍子, 你去問主人家, 要幾箇席子藁薦來。(《鬪老》 上 68b)
⇒ 且不要摘鞍子, 你去問主人家, 要幾箇席子草薦來。(《老新》 22a)
- 6) 你擡出這箇馬契來, 問他每元定價錢內中, 除了十兩鈔做罰鈔。(《原老》 25b)
계약을서를 내놓으시고, 저분들에게 원래 정한 값에서, 10냥을 벌금으로 제하도록 합시다.
→ 你拿出這箇馬契來, 問他們, 元定價錢內中, 除了五兩銀子做番悔錢。(《鬪老》 下 19b)
⇒ 這麼說, 原定價錢內中, 除了五兩銀子做反悔錢。(《老新》 29a)
- 7) 今日去問長老借一間僧房, 早晚溫習經史。(元 王實甫 《西廂記》 一本二折白)
오늘 長老에게 선방 한 칸을 빌어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겠다.
- 8) 老爺在日, 嘗問我托妻寄子。(明 王世貞 《鳴鳳記》 十 白)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처와 자식을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 9) 同太太商量, 要問他借八只衣箱, 前去質當。(清 李伯元 《文明小史》 第十二回)
부인과 상의하여 부인에게 여덟 짝의 의걸이장을 빌어서 저당을 잡혔다.
- 10) 我問他借兩本書。¹⁴⁾
난 그에게 책 두 권을 빌렸다.

위의 예문(7번~10번)은 近現代漢語詞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介詞 '問' 字의 用例다. '問'字가 介詞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唐代이고 宋代 이후부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3) 原文의 '就'는 '順便, 趁便'의 의미를 가진다. 즉 우리말로 '... 하는 김에'로 새길 수가 있다. 現代漢語에서 '就'字가 단독으로 '順便'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용례는 찾을 수가 없으나, 近代漢語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我正要看洛陽城理, 如今領百十騎人馬同段志賢打探, 就觀看他洛陽城去. (난 마침 洛陽城을 보고자 하였는데, 오늘 백 여 기의 인마를 이끌고 段志賢과 함께 염탐을 하겠소, 염탐을 하는 김에 洛陽城을 구경이나 해야겠소) - 關漢卿 《單鞭奪槊》二末 白, 「你孩兒去南昌做賣買, 就躲災難. (그대의 자식을 南昌에 장사를 보내고, 간 김에 재난도 피하도록 하시오) - 元·孟漢卿 《魔合羅》楔子」 등이 그것이다.
- 14) 《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 2001年, 1321쪽)에서 발췌 인용.

비교적 보편적으로 쓰였고, 現代漢語(특히 方言)에 이르러서도 介詞 ‘問’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¹⁵⁾ 위의 예문 10)번이 現代漢語詞典에서의 用例이다.

《原老》(元代)에서의 介詞 ‘問’字는 改修本人 《翻老》(明代)와 《老新》(清代)에서도 改修되지 않고 여전히 쓰이고 있음은 近代漢語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2.2 從

‘從’字는 본래 ‘跟隨(뒤 따르다)’, ‘順從(복종하다)’, ‘參與(참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動詞이나 《原老》에서 찾을 수 있는 총 14번의 ‘從’字 用例에서, 12번이 介詞로 쓰이고 나머지 2번이 副詞로 쓰이고 있는 用例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예문(11번~17번)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詞語 앞에서 동작의 起點이나 經由를 나타내는 介詞로 쓰이고 있는 用例들이다. 動作의 起點이나 經由를 나타내는 介詞 ‘從’은 古代漢語(아래 예문 11번)에서뿐만 아니라 近代漢語(예문 12번)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고, 現代漢語(예문 13과 14번)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1) 晏子爲齊相, 出, 其御之妻從門間而窺其夫。(《史記·晏平仲傳》)
晏자가 齊나라 재상이 되어 외출할 때, 마부의 아내가 문틈에서 마부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다.
- 12) 若去打華陰縣時, 須從史家村過。(《水滸傳》 第二回)
만일 華陰縣을 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史家村을 지나가야 한다.
- 13) 從今以後, 誰也不能遲到。
오늘부터 누구도 지각해서는 안 된다.
- 14) 從窓縫裏往外望。
문틈으로 밖을 살피다.¹⁶⁾

15)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 「介詞‘問’始見于唐代; 宋代以後, 用例比較普遍。到現代漢語(尤其是方言)裏, 介詞‘問’仍然經常使用。」(山東教育出版社, 2000年, 265쪽)

16) 예문 13)번과 14)번의 예문은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1年, 210쪽)에서 인용.

- 15) 伴當, 恁從那裏來? 俺從高麗王京來。(《原老》 1a)
 이보시오 형씨들은 어디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려의 개경에서 왔습니다.
 → 大哥, 你從那裏來? 我從高麗王京來。(《鬮老》上 1a)
 ⇒ 阿哥, 你打那裏來? 我從朝鮮王京來。(《老新》 1a)
- 16) 你這幾箇伴當從那裏厮合將來?(《原老》 5b)
 함께 오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함께 만나서 오시는 것입니까?
 → 你這幾箇火伴從那裏合將來?(《鬮新》 上 17b)
 ⇒ 你這幾箇火伴從那裏同來的?(《老新》 6a)
- 17) 從年時天旱, 田禾不收, 饑荒的上頭, 生出歹人來。(《原老》 8a)
 지난해부터 날이 가물어,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기근이 들어, 흉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 從年時天旱, 田禾不收, 饑荒的上頭, 生出歹人來。(《鬮新》上 27a)
 ⇒ 因去年年成荒旱, 田禾沒有收成上頭, 就生出這些歹人來了。(《老新》 9a)

위의 예문 15)번에서 17)번은 《原老》에서, 총 7번의 用例를 찾을 수 있는 동작의 起點이나 經由를 나타내는 介詞 ‘從’의 쓰임이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介詞 ‘從’은 改修本인 《鬮老》이나 《老新》에서도 대체적으로 ‘從’字가 변화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지만, 15)번의 《老新》(⇒표)에서는 ‘從’字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介詞 ‘打’字로 改修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17)번의 《老新》에서는 아예 삭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近現代漢語에서 ‘打’字는 동작의 起點이나 經由를 나타내는 詞語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原老》나 《鬮老》에서는 단 한 차례도 ‘打’字가 介詞 ‘從’의 의미로 쓰인 用例는 찾을 수는 없었다.¹⁷⁾

17) 《原老》에서 ‘打’字의 출현은 총 48번인데, 모두「定然喫打三下(만드시 세 대를 얻어맞다)」등의 動詞로 쓰이고 있을 뿐, ‘打’字가 經由를 나타내는 등의 介詞로 쓰이는 用例는 찾을 수가 없고, 改修本인《鬮新》에서도 그 用例가 보이지 않는다. 馬貝加的《近代漢語介詞》에서「‘打’字가 經由를 나타내는 介詞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宋代부터이고 元曲에서는 많은 쓰임을 볼 수 있다」(中華書局, 2002年, 94쪽)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原老》나 《鬮老》에서의 用例에서처럼 近代漢語에서 介詞 ‘打’字의 쓰임은 ‘從’字에 비해서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水滸傳虛詞計量研究》一書에서도 다음과 같은 분석을 볼 수 있다:「《水滸傳》에서 經由를 나타내는 介詞 ‘從’의 用例는 총 81번인데, 介詞 ‘打’字의 用例는 9번, 그 가운데 ‘打’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가 3번이고, 介詞 ‘打’와 介詞 ‘從’이

아래의 예문은 ‘從’자가 동작의 발생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例들이다. 《原老》에서는 총 6번의 이와 같은 用例를 찾을 수 있다.¹⁸⁾

- 18) 傳說呵在版築處生, 伊尹呵從稼穡中長。(關漢卿 《玉鏡台》 一 天下樂)
宰相 傳說은 공사판에서 태어났고, 宰相 伊尹 또한 農奴 신분에서 자랐다.
- 19) 我從未拔白悄悄出城來。(關漢卿·謝天香)
난 날이 밝기도전에 살며시 성을 빠져나왔다.
- 20) 從三歲上亡了他母親。(關漢卿·竇娥冤)¹⁹⁾
세 살 때 그의 어머니를 잃었다.
- 21) 俺從早起喫了些飯, 到這早晚不曾喫飯裏, 好生的饑也。(《原老》 15a)²⁰⁾
우리는 아침에 밥을 좀 먹고, 지금까지 밥을 먹지를 못하여, 무척 배가 고프니다.

같이, 즉 ‘打從’이 經由의 介詞로 쓰인 用例가 6번이다(介詞‘從’表示經由, 在《水滸傳》中共有81例, 占其介詞用例的14.89%, 也是介詞‘從’比較重要的用法之一。…“打”在《水滸傳》中主要用作動詞, 介詞的用例不多, 在“打”的1,710個用例中作介詞的只有9例, 都表示經由。而且, 在這9例表示經由的介詞“打”中, 有6例是介詞“打”和介詞“從”連用構成“打從”表示經由。)(趙煒 等著, 暨南大學出版社, 2009年, 26~27쪽)

- 18) 이 밖에도 介詞 ‘從’이 동작의 대상(指向)을 나타내는 ‘向’, ‘跟’ 또는 동작의 방향(朝向)을 나타내는 ‘朝’, ‘往’ 등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지만, 《原老》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쓰임을 찾을 수가 없다. 俞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 2000年, 379쪽)에서 ‘從’字的 ‘向’, ‘跟’ 쓰임과 ‘朝’, ‘往’ 쓰임의 用例를 볼 수 있다: ‘從表示動作之“指向”, 相當于“向”、“跟”, …起始于漢代, 宋元以後少見。例如: △晉公子重耳失國, 乏食于道, 從耕者乞食。《論衡·第六十四紀妖》(진나라 공자 重耳는 나라를 잃고 길에서 밥을 먹고 농부들에게 걸식을 하였다) △有一異兒, 長四尺餘, 年可六七歲, 衣青衣, 忽來從群兒戲。《搜神記》卷八(키는 4척 정도에 나이는 여섯 일곱 살쯤 먹어 보이고 파란 옷을 입은 한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군중들을 향하여 재주를 부리는 것이었다。)… 表示動作方位上的“朝向”, 相當于“朝”、“往”。宋元明時期有見, 但出現不多, 到了普通話則已完全消亡。例如: △又如人捉賊, 走東去, 合從東去捉, 却教它走從西去, 如何捉得。《朱子語錄》卷四十三(예를 들어 사람이 도둑을 잡을 때, 도둑이 동쪽으로 도망가면 동쪽으로 잡으러 가야하는데 그들에게 서쪽으로 달려가 잡으라 한다면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王臣問道: “可見一野狐從那裏去了?” 瞎道人把手指道: “向東邊去了。”《醒世恒言》卷六(왕신이 물었다: “들 여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았습니까?” 눈먼 도인 손을 들어 가리키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 19) 예문 13)번과 14)번의 예문은 程湘清 主編, 《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 1992年, 78쪽)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 20) 예를 들어 본문 21)번의 例文이 ‘俺從早起到這早晚不曾喫飯裏(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을 먹질 못했다)’처럼 중간에 ‘喫了些飯’一句가 없었다면, ‘從~到~’의 형식이 되므로 이에 ‘從’字는 動作의 起點이나 經由를 나타내는 介詞 ‘從’이 되었을 것이다.

- 我從早起喫了些飯, 到這早晚不會喫飯裏, 好生的饑了。(《鬪老》上 53a)
 ⇒ 我們從早起吃了些飯, 到這時候不會吃些甚麼, 肚裏好饑餓。(《老新》17a)
- 22) 俺從年時正月裏, 將馬和布子到大都賣了。(《原老》5a)
 나는 지난 정월에 말과 배를 북경에 가지고 가서 다 팔았습니다.
 → 我從年時正月裏, 將馬和布子到京都賣了。(《鬪老》上 15a)
 ⇒ 我從年時正月裏, 將馬匹與布到京都賣了。(《老新》5a)
- 23) 眞箇在前曾見人打水, 終不曾學, 從今日理會得也。(《原老》10b)
 정말 요전에 사람들이 물 길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배우지 않았었지요, 오늘에서야 (요령을) 깨우쳤습니다.
 → 眞箇在前曾見人打水, 不曾學, 從今日理會得了。(《鬪老》上 35b)
 ⇒ 向來常見人打水, 從不曾試, 今日却會了。(《老新》11b)
- 24) 你從幾時離了王京? 俺七月初頭離了。(《原老》21a)
 → 從幾時離了王京? 我七月初頭離了。(《鬪老》下 3a)
 ⇒ 你多站從王京來的? 我從七月初頭起身離家的。(《老新》23b)

위의 예문에서의 '從'은 동작의 발생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介詞 '在'의 용법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의 예문 18)번 '在版築處'의 對應句인 '從稼穡中'의 用例에서 '從'이 '在'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介詞로 쓰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위의 예문 21)~24)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原老》에서 동작의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介詞 '從'은 改修本人《鬪老》나 《老新》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23)번 《老新》(『표』)에서 介詞 '從'이 삭제되고 대신 '從'字가 '從來(여태껏, 지금까지)'의 의미를 가지는 副詞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4)번 《老新》(你多站從王京來的? 我從七月初頭起身離家的)의 경우처럼, 두 개의 '從'은 각각 출발의 起點을 나타내는 介詞와 발생의 시간을 나타내는 介詞로 추가되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작 발생의 장소와 발생의 시간을 나타내는 介詞 '從', 즉 발생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介詞 '在'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從의 이러한 쓰임은 漢代에 이미 출현되어 쓰이고 있었고, 元明 이후에서는 점차 그 쓰임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앞에서 이미 《原老》에서 ‘從’字가 介詞로 쓰이고 있는 用例는 총 14번임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에 4번의 用例에서 介詞 ‘從’이 處所詞를 나타내는 詞語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10번이 위의 예문 21)~24)번의 ‘從早起’, ‘從年時正月裏’, ‘從幾時’ 등에서처럼 ‘從’字가 時間詞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²⁾ 이에 《原老》나 《飜老》에서 볼 수 있는 介詞 ‘從’字가 時間詞를 介詞의 賓語로 취하는 이러한 쓰임은 元明時代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현상으로 보인다.²³⁾

2.3 從頭

‘從頭’一詞은 近現代漢語에서 아래의 예문 25)번과 26)번에서처럼 ‘從最初(처음부터)’ 또는 ‘重新(다시, 새로이)’²⁴⁾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副詞이지

- 21) 俞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 2000年, 378쪽):「表示動作發生的處所或發生時間, 相當于“在”。這一用法兩漢時期就已出現。例如: △ (灌夫)從坐上語侵之(승상이 일어나지 않자, 灌夫 돌아와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 《史記·魏其武安侯列傳》)。△ 神明從胸腹中聞知其旨(神은 마음속에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한다. 《論衡·第七十一 卜筮》)。直到元明以後纔逐漸少用, 以至于消亡。不同時期的例子: △ 宣武取筆欲除, 郗不覺竊從帳中與宣武言(宣武가 붓을 들어 삭제하려고 하자, 郗超는 참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살머시 軍幕에서 宣武에게 말을 하였다. 《世說新語·雅量第六》)。… △我從今年正月十三日, 提得一籃兒雪梨, 我去尋西門慶大郎掛一勾子(나는 올해 정월 십삼일 배 한 바구니 들고 西門慶 어른을 찾아가 안면을 트고자 하였다. 《水滸全傳》二十六回)。」
- 22) 《原老》에서 ‘在’字의 쓰임은 총 37번인데, 그중 動詞로 쓰인 用例가 6번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동작 발생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介詞 ‘在’의 用例들이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論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原老》에서 쓰이고 있는 介詞 ‘在’의 用例 대부분은 處所詞를 賓語로 취하고, 반면에 時間詞를 賓語로 취하고 있는 경우는 약 3개의 用例에 불과하다. 《原老》에서는 ‘從’字가 介詞 ‘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23) 程湘清은 저서 《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 1992年, 78쪽)에서「《世說新語》와 《變文》에서의 ‘從’은 處所詞의 쓰임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戲曲》에서는 時間詞의 쓰임이 많다(《世說新語》和《變文》中的“從”引進處所的用法都占多數, 而《戲曲》中却多用于引進時間)고 하면서 例文을 제시(本文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 19와 20번을 포함한 총 5개의 用例)하고 있다. 앞의 주석 20)번 《近代漢語語法研究》에서 제시하고 있는 ‘從’字의 用例 4개 가운데 3개가 場所를 취하고 있는 用例들인데, 이 3개는 모두는 《世說新語》와 그 이전(唐宋)의 문헌에서 발췌한 用例들이고, 1개가 時間詞를 취한 用例로서 明代의 《水滸全傳》에서 발췌한 用例이다.
- 24)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1年)에서 ‘從頭(兒)’는 ‘從最初(做)’ 또는 ‘重新(做)’로 풀

만, 近代漢語에서는 現代漢語에서와는 다르게 아래의 예문 27)번에서처럼 ‘全部: 統統(전부, 모두 다)’, ‘一一(하나하나씩)’의 의미로 쓰이거나, 28)번에서와 같이 ‘仔細(자세히)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5) 從今打破風流陣, 一句句從頭自付。(元·王元鼎 《雁傳書》套曲)
오늘부터 풍류의 정을 끊어버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처음부터 곰곰이 헤아려 볼 것이다.
- 26) 小夫人把适來說的話, 從頭細說一遍。(《警世通言·小夫人金錢贈年少》)
작은 마님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재차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 27) 你將這連天的宅僧嫌小, 負郭的田還不好, 一張紙從頭兒賣了, 不知久後栖身何處着?(《東堂老》一 【賺殺】)
끝없이 이어지는 이 저택이 작다고 하고, 이 기름진 옥답이 좋지 않다고 하여, 수표 한 장에 전부를 팔아버리면 앞으로는 어디서 몸을 누이고 살아갈 것인가?
- 28) 人家一領簇新的衣, 你去那典場上你便從頭的觀。(《劉弘嫁婢》一 【油葫蘆】)
다른 사람의 새 옷을 전당포에서는 (실눈을 뜨고)세세히 살펴본다.
- 29) 這馬裏頭各自有數目, 你從頭寫我的馬契。(《原老》24a)
이 말들은 각자 자신들의 몫이 있습니다. 중개인께서는 우리들의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써주세요.
→ 各自有數目, 你從頭寫我的馬契。(《鬪老》下 15b)
→ 各自有數目, 你先寫我的馬契。(《老新》27b)

위의 예문 29)번은 《原老》에서 볼 수 있는 ‘從頭’의 用例이다. 《原老》에서 단 한 차례 찾을 수 있는 ‘從頭’一詞에 대해 《鬪老》의 諺解는 ‘첫 그투로’이고, 《老乞大》 또한 ‘첫머리로’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광 역주·해제의 《原本老乞大》²⁵⁾에서도 「각자가 말 몇 마리씩 갖고 있어요. 당신은 맨 처음에 내 계약서를 먼저 쓰시오」라는 번역을 볼 수가 있다.

위의 예문(25~28번)에서처럼 近代漢語에서 ‘從頭’가 ‘從最初’ 또는 ‘重新’으

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예문으로는 ‘從頭兒做起(처음부터 하다)’, ‘從頭兒再來(다시 또 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25) 鄭光 역주·해제 《原本老乞大》(이하 《鄭光本》), 김영사, 2004년, 264쪽.

로 그리고 ‘全部’나 ‘仔細’ 등의 의미로 쓰인다면 《讎老》의 諺解나 《鄭光本》에서처럼 ‘첫 번째’ 또는 ‘맨 처음’으로 번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내 계약서를 맨 먼저 쓰시오’ 등의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위의 예문 29)번의 改修本 《老新》에서처럼 「你先寫我的馬契」, 즉 ‘從頭’가 ‘先’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副詞 ‘先’은 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의 의미로 ‘나중에’의 의미를 가지는 ‘後’의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전체의 문맥은 「你先寫我的馬契, 然後寫別人的馬契」일 것이다.

‘從頭’는 본래 ‘처음부터 하다(從最初做起)’의 의미를 가지는 의미에서 ‘차례대로 하나하나(逐一)’의 의미를 내포하고, 또 ‘전부 다(전부; 통통)’의 의미로 확대되어 결국은 ‘자세히(仔細)’ 등의 의미로 확대 응용되어 쓰이고 있는 어휘이긴 하지만,²⁶⁾ 諺解나 《鄭光本》에서처럼 ‘나 먼저’의 의미를 풀이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詩詞曲語辭集釋》²⁷⁾에서도 ‘從頭’에 대하여 많은 用例를 제시하면서 ‘從頭’一詞은 ‘全部, 一一’의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從頭’一詞에 대한 많은 用例 가운데 「待從頭收拾舊山河, 朝天闕」(岳飛 《滿江紅》詞)가 그것인데, 여기서의 ‘從頭’가 ‘全部, 一一’의 의미를 가진다면 「내 하나하나 (오랑캐에게 잃은) 옛 산하를 수습하여 천자를 알현하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 ‘從頭’가 現代漢語에서 풀이되고 있는 ‘重新’이라고 해석되어도 「내 다시 잃어버린 옛 산하를 회복시켜 천자를 뵈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從頭’를 ‘처음으로’나 ‘첫 번째’ 또는 ‘먼저’ 등으로 풀이를 한다면, 앞의 예문 26~28)번에서 제시되고 있는 用例은 물론이고, 위의 岳飛의 《滿江紅》詞 조차도 엉뚱한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예문 29)번 ‘這馬裏頭各自有數目, 你從頭寫我的馬契’一句에 대해 ‘我’를 복수로 보고, 「이 말들은 주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26) 董志翹 蔡鏡浩 著, 《中國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 1994年, 82쪽): 「袁賓 《禪宗著作詞語匯釋》: “從頭本有從最初(做起)之義, 既是從最初做起, 則往往隱含依着次序逐一去做, 做到結束的意思, 如此便引伸出‘一一, 全部’之義」.

27) 王鍊·曾明德 著(語文出版社, 1991年).

소상히 써주시오』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 여기서의 ‘從頭’는 ‘全部、一一’의 의미를 가지는 副詞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2.4 客人

‘客人’一詞는 《原老》에서 총 46번이 출현이 되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近代漢語에서 ‘客人’은 아래의 예문(30, 31번)에서처럼 ‘旅客’ 또는 ‘行商、客商’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0) 嫂子，我是過路客人，肚中饑餓，尋不着酒食店，我與你一貫足錢，央你回些酒飯吃。(《水滸全傳》 43回)
아주머니, 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고프지만, 주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충분한 돈을 드릴 것이니, 제발 먹을 밥을 좀 주십시오.
- 31) 趙雲按適樓，言天晚，來日入城，客人不肯，言：“俺資本船貨物多，城外恐有失。”(《三國志平話》 卷中)
趙雲이 門樓에 이르러, 날이 저물고 늦었으니 내일 入城하라고 하자, 行商의 商人은 자신들의 배에 물건이 많아, 성 밖에 머물면 물건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고 한다.
- 32) 楊志說道：「俺只道是歹人，原來是幾個販棗子的客人。」(《水滸全傳》 16回)
楊志가 말 했다: ‘나쁜 사람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추를 파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近代漢語에서는 ‘客人’이 ‘行人’의 의미뿐만 아니라 ‘行商’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연히 《原老》에서도 ‘客人’一詞는 ‘旅客’의 의미와 함께 ‘客商’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용례를 찾을 수 있다.

- 33) 但是直東去的客人每，別處不下，都在那裏安下。(《原老》 3b)
물위 遼東으로서 가는 나그네들히/다른 디 브리오디 아니 호고... (《老乞大諺解》 以下 《老諺》)²⁸⁾
→ 동쪽에서 온 모든 나그네들은 다른 데서는 머물지 않고 모두 그곳에서

목는구먼.

- 34) 這哥哥甚麼言語? 你是熟客人, 咱每便是自家裏一般。(《原老》 5b)
 이 큰 형아 모습 말고/너는 니기 든닌 나그내니/우리 곳 내 집 혼 가지라.
 (《老諺》)
 → 나리,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나리께서는 단골손님으로 저희 가족
 과 같으니.
- 35) 年時又有一箇客人趕著一頭驢, 著兩箇荊籠子裏盛著棗兒, 駝著行。(《原老》
 8b)
 전년의 또 혼 나그내 이셔/혼 나귀를 모라/두 채롱애/대초다마 싣고 가더
 니. (《老諺》)
 → 작년에 또 다른 나그네가 당나귀를 한 마리 몰고 바구니 두 개에 대추
 를 가득 담아 싣고 갔는데.
- 36) 客人每, 你這馬待要賣那?
 나그내니/네 이 말을 풀고져 흐느냐. (《老諺》 19b)
 → 손님, 이 말은 파실 겁니까?

위의 例文 33)번은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통틀어 ‘旅客’으로 볼 수 있으므로 《老諺》에서처럼 ‘나그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4)번의 경우, 자기 집에 찾아온 ‘단골손님’이라는 의미이므로 역시 통틀어서 ‘나그네’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5)번과 36)번의 ‘客人’은 앞뒤의 문맥으로 ‘商人’의 의미인 것이다. 우리말의 ‘나그네’²⁹⁾가 ‘行販’의 의미를 가진다면 몰라도 말이다. 이와 같이 《老諺》에서도 최근에 편찬된 譯註書³⁰⁾에서도 그대로 ‘나그네’로 번역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소한도 위의 예문 35)번은 「또 작년에 한 장사치가 ...」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36)번의 경우도 「이보시오 말 장수, 이 말은 파실 겁니까?」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말의 특성상 ‘손님’이라는 호칭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36)번 ‘客人’의 의미는 ‘行販’의 의미를 가지는 것

28) 《原老》本은 諺解가 없기 때문에, 이에 改修本라고 할 수 있는 《老乞大諺解》에서 ‘客人’에 대한 풀이를 참고하고자 수록하였다.

29) 《새우리말 큰사전》: 「①제 고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②남자 어른에게 대하여 ‘사람’의 뜻으로 홀대하여 이르는 말. (삼성출판사, 1984년)」

30) 例文 33)번~36)번에서 볼 수 있는 번역(→표시 부분)은 鄭光 역주해제, 《原本老乞大》(김영사, 2004年)에서 발췌.

이다.

2.5 商量

現代漢語에서 ‘商量’은 ‘交換意見’³¹⁾이라는 풀이를 볼 수 있고, 우리말 사전에는 ‘헤아려 잘 생각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例文 37)번은 《原老》에서 볼 수 있는 ‘商量’의 用例이고 아래의 우리말 번역은 《鄭光本》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37) 俺怎麼敢胡說? 怕你不信時, 別箇店裏試商量去。(《原老》 5b)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믿지 못하신다면 어서 다른 여관에 가서 물어보시죠. (《鄭光本》 71쪽)

위의 例文의 ‘商量’에 대해서 《鄭光本》 71쪽 8)번의 주석에는 「원문 ‘商量’은 “상의하다”는 뜻인데 《原老》에서는 값을 흥정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다. 물론 ‘商量’은 近代漢語에서뿐 만아니라 現代漢語도 ‘討論, 磋商’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近代漢語에서는 아래의 例文 38)번에서 처럼 ‘策劃(계획하다, 꾸미다)’, 例文 39)번의 ‘購買, 問價(값을 흥정하다)’, 例文 40)번의 ‘考慮(헤아려 생각하다)’ 등이 그것이고, 그 밖에도 문맥에 따라서 ‘準備’、‘醞釀’³²⁾, 그리고 ‘教演’、‘演奏’³³⁾ 등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 38) 妾身本是典身三年的文書, 不想趙太公暗暗的商量, 改做了賣身文契, 與他家永遠使用。(關漢卿《五侯宴》 一 正旦白)

31) 《現代漢語詞典(修正本)》(商務印書館): 「商量, 交換意見: “這件事要跟他商量一下。”」

32) 元·喬吉小令《水仙子·雨窓寄事》: 「客懷寥落雨聲中, 春事商量花信風。」又, 清·無名氏《十醋記》七: 「你且忍耐商量, 不可造次胡行也。」

33) 元·湯顯祖《紫釵記》三: 「生下女兒, 名呼小玉。年方二八, 貌不尋常。昔時亦老身處涉獵詩書, 新近請鮑四娘商量絲竹。」

침은 본시 삼년 계약에 몸을 잡힌 몸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는데 趙太公이 암암리에 일을 꾸며서, 몸을 판 문서를 만들어, 영원히 부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9) 那楊志…缺少果足，未免將一口寶刀出市貨賣。終日價無人商量。(《宣和遺事》元集)

楊志는 …여비가 모자라자, 하는 수 없이 한 자루의 寶刀를 저잣거리에 팔려고 내놓았다. 하루 종일 흥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 40) 說的是，自有個商量：說的不是呵，番官那裏？就拿去殺壞者！（明·黃元吉《流星馬》第二折）

맞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番官이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잡아서 죽여 없애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 '商量'은 “상의하다”는 뜻인데 《原老》에서는 값을 흥정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鄭光本》 풀이는 '商量'이라는 語彙의 의미를 現代漢語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原老》 전체의 이야기는, 한 무리의 高麗商人들이 물품을 가지고 지금의 北京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내용이므로, 《原老》에서 '商量'의 어휘가 출현되는 총17번의 用例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用例(아래의 41~43번)는 “購買(물건을 사다), 問價(가격을 흥정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商量'이 “策劃(계획하다; 상의하다)”의 의미로 쓰인 用例은 아래의 例文 44)번에서 찾을 수가 있다.

- 41) 既你待賣時，咱每商量，這箇青馬後生那老？(《原老》 22a)

당신이 파신다면, 우리 흥정이나 해봅시다. 이 青馬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 42) 這箇馬如何，今春新翻了的，喂壯馬。這好的歹的都一發商量。(《原老》 22b)

이 말은 어떻소? 올 봄에 불알을 갠 튼튼한 말이요. 좋은 말 나쁜 말 모두 한꺼번에 흥정을 합시다.

- 43) 似你這般定價錢，就高麗田地裏也買不得。那裏是實買馬的？則是胡商量的。(《原老》 23b)

당신의 이 가격은, 우리 고려 땅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말을 사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소? 장난으로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 44) 咱每買些甚麼行貨廻去時好? 商量其間, 涿州買賣去來的伴當到來相見。(《原老》 37b)
 우리는 무슨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涿州로 장사를 가던 일행들이 돌아와 만났다.

2.6 敢

《原老》에서 ‘敢’字의 출현은 총 24번인데, 그 중에서 8번이 추측의 의미로 쓰인 用例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崔世珍이 편찬한 《老朴集覽》에서 ‘敢’字에 대한 설명이다.

《老朴集覽·單字解》: 「敢 忍爲也. 你敢那 네 구티여 그리홀다 又疑似也 敢知道 아는 듯하다. (敢, 억지로 하다. 예: ‘你敢那 당신은 구태여 하겠는가? 그런 것 같다. 예: 敢知道 알고 있는 것 같다.)」

위의 《老朴集覽》의 설명으로 보아 近代漢語에서 ‘敢’字가 추측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現代漢語에서 ‘敢’字는 일부 方言³⁴⁾에서 ‘敢’字가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近代漢語에서는 ‘敢’字가 “莫非, 怕是, 敢是” 등의 추측의 의미로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原老》와 당시의 다른 문헌에서도 그 用例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³⁵⁾

- 45) 姐姐, 你看月闌, 明日敢有風也! (明·王實甫《西廂記》二本四折)
 아가씨 저 달의 그림자를 보세요, 내일 바람이 불 것 같아요!
 46) 馬敢喫了草也, 飲去來。(《原老》 10a)
 말들이 풀을 먹었을 것이니, 물 먹이러 갑시다.
 47) 咱每都去了時, 這房子裏沒人, 敢不中。留一箇看房子, 別箇的牽馬去來。

34) 《現代漢語詞典(修正本)》(商務印書館): 「敢: <方> 莫非; 怕是; 敢是」

35)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敢』在古代漢語中就用了. 從五代到近古有用于推量的, 但現代不這樣用了. 較早的例子如: 雖是後生, 敢有雕琢之分.(祖6) [意爲: 雖然年輕, 但是會有出息.]」(北京大學出版社, 1987年, 191쪽)

(《原老》10a)

우리가 다 가면, 이 방에는 사람이 없게 되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 방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끌고 갑시다.

- 48) 索甚麼糶米, 俺的飯熟也, 客人每喫了過去。這般時, 敢少了恁飯? (《原老》11b)

쌀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밥이 다 되어가니, 손님들은 먹고 떠나시오. 그리하시면, 주인장의 식사가 혹시나 부족하지나 않을까요?

- 49) 有箇後生來, 這裏不見也, 敢出去了。(《原老》20b)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외출한 모양이요.

- 50) 委實沒若干料鈔, 敢則到的三百定料鈔, 那零一十定與恁上等擇鈔如何?

사실 그 만큼의 料鈔은 없고, 아마 料鈔로 300定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10定은 上等的 擇鈔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原老》에서는 近代漢語의 다른 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敢’字의 또 다른 쓰임을 찾을 수가 있다. 아래의 예문은 《原老》에서 ‘敢’字가 “豈敢(어찌 감히~ 하겠는가)” 즉 “不敢(감히 못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用例이다.

- 51) 知他! 那話怎敢道? 天可憐見, 身已安樂呵, 也到得有。(《原老》1a)

어찌 알겠소! 그 것을 어찌 감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요(그와 같은 일들은 예측 할 수는 없는 것이요)? 하늘이 (우리를)어여뻐 여기시고, 몸이 성하다면, 도착할 수는 있을 것이요.

- 52) 這哥哥甚麼言語? 你是熟客人, 咱每便是自家裏一般, 俺怎麼敢胡說? 怕你不時, 別箇店裏試商量去。(《原老》5b)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손님은 우리 단골이어서, 우리는 한 가족과 같은데, 내가 어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가게에서 가격을 알아보시지요.

- 52) 小人每驟面間廝見, 哥哥便這般重意與茶飯喫, 怎麼敢怪。(《原老》12a)

소인들이 무작정 마주하게 되었는데, 형씨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음식을 주셨는데, 어찌 감히 탓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原老》에서는 ‘敢’字가 ‘可’ 즉 ‘可以: 能(되다, 할 수 있다.)’의 의미로 쓰이는 用例(아래 54번)와 ‘准定, 包管(반드시, 꼭)’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

例(아래 55, 56번)와 ‘肯, 願(기꺼이 원하다)’ 의미로 풀이되는 用例(아래 57번) 등, 《原老》에서는 近代漢語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敢’字의 用例들을 보여주고 있다.

- 54) 主人家哥, 小人更有一句話, 敢道麼? (《原老》 15a)
 주인 어르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을 해도 될까요?
- 55) 這伴當, 你過的草忒亂, 口頭每怎生喫的? 好生細細的過者。這伴當, 你敢不會煮料的法度。(《原老》 6a)
 아니 노형, 노형은 꼴을 너무 굵게 잘랐어요, 말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엄청 가늘게 자르시오. 노형은 틀림없이 쇠죽을 잘 끓이지 못할 것 같소이다.
- 56) 那般者。你敢慣打水, 我不慣打水。你先打水去, 俺兩箇牽馬去。(《原老》 10a)
 그렇게 합시다. 형씨는 틀림없이 물을 잘 기를 것이지만, 난 물을 잘 길지 못합니다. 형씨가 먼저 가서서 물을 길으세요, 우리 둘이 말을 끌고 가겠습니다.
- 57) 底似的漢兒言語說不得的上頭, 不敢言語。他每委實不是歹人。(《原老》15a)
 어찌든 중국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말을 하려하지 않는 것이지, 저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3. 結論

《原老》에서 ‘問’字의 출현은 총 18번이었으나 그 대부분의 쓰임은 現代漢語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묻다’·‘안부를 묻다’·‘심문하다’·‘따지다’ 등의 動詞로 쓰이고 있었으나, ‘問’字가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向’ 또는 ‘跟’의 의미를 가지는 介詞로 쓰인 5번의 用例를 찾을 수가 있었다.

《原老》(元代)에서의 介詞 ‘問’字가 改修本人 《飜老》(明代)와 《老新》(清代)에서도 改修되지 않고 여전히 ‘問’字가 介詞로 쓰이고 있는 用例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쓰임은 近代漢語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原老》에서 從字가 동작의 발생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 介詞 “在”와 같은 쓰인 용례를 6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改修本인 《翻老》나 《老新》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介詞 ‘在’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從의 이러한 쓰임은 漢代에 이미 출현되어 쓰이고 있었고, 元明이후에서는 점차 그 쓰임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從頭’는 본래 ‘처음부터 하다(從最初做起)’、‘차례대로 하나하나(逐一)’、‘전부 다(전부; 통통)’、‘자세히(仔細)’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客人’은 ‘旅客’ 또는 ‘行商、客商’ 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의미와 ‘商人’、‘行販’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商量’ 一詞는 近代漢語에서뿐만 아니라 現代漢語도 ‘討論, 磋商’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近代漢語에서 또한 ‘策劃’、‘購買, 問價’、‘考慮’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쓰임 《原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敢’字는 現代漢語와는 다르게 近代漢語에서는 ‘敢’字가 “莫非, 怕是, 敢是” 등의 추측의 의미로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原老》와 당시의 다른 문헌의 用例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비록 어휘 하나에 대한 추적이지만, 《老乞大》 系列書야말로 近代漢語를 대표하는 口語이고 近代漢語의 發展過程을 研究하는 資料로서 無限한 價値가 있다 할 것이다.

諺解類의 자료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대로의 모습을 신뢰한다. 그러나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몇 개의 語彙에 대한 論證이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老乞大系列書는 老乞大時代를 代表하는 當時의 口語이고, 漢語의 變遷과 發展過程을 研究하는 資料로서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가 700년의 時空을 넘어 그 당시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어렵겠지만, 崔世珍이 그러했듯이 여러 가지 用例를 통하여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參考文獻 >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年。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鄭光 監修，國語史資料研究會 譯註，《譯註翻譯老乞大》，太學社，1995年。
____，역주·해제，《原本老乞大》，김영사，2004年。
____，《譯註 原本老乞大》，박문사，2010年。
____，《역주번역노걸대와노걸대언해》，신구문화사，2006年。

詞典類

-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 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王鐸、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____，《詩詞曲語辭例釋》，中和書局(增訂本)，1991年。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藍立莫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卜鍵主 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 李行健 主編 《河北方言詞匯編》，商務印書館，1995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2001年。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北京大學中文系 1955、1957級語言班 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著書類

-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김영사，2004年。
 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 著，江藍生、白維國 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王雲路、方一新，《中古漢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胡竹安 等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_，《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房玉清 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3年。
 陳秀蘭 著，《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趙煒 等 著，《水滸傳虛詞計量研究》，暨南大學出版社，2009年。
 董志翹、蔡鏡浩 著，《中國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論文

-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
 李陸禾，〈老乞大語彙考〉，《中國語文論叢》，第39輯，2008年。
 _____，〈老乞大語彙考(二)〉，《中國學論叢》，25輯，2009年。
 _____，〈老乞大語彙考(三)〉，《中國語文論叢》，41輯，2009年。
 _____，〈老乞大語彙考(四)〉，《中國語文論叢》，43輯，2009年。

_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 44輯, 2010年.

_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刊》, 27輯, 2010年.

< 中文提要 >

本稿以〈老乞大語彙考〉為題目，研究有關《原本老乞大》一書之語彙，其目的有二：一是參照當時的其他文獻裏的所用的用例與一些語法現象，考證出《老乞大》裏所記載的語言為當時活生生的口語，並不是在特定的地區使用的限定性的語言，更沒有所謂過去漢語裏沒有見過的語法現象。其二是在研究過程中，發現《老乞大》一系列書的韓語翻譯(諺解)的誤謬，併這些誤謬影響於近來新編的有關《老乞大》一書之譯註。

《老乞大》時代，“間”字用作介詞之用例常見，其作用如介詞“向”或“跟”字類似。而在已《原本老乞大》裏所出現的“向”字的用例為18次，其中有5個用例作為介詞，如同介詞“向”或“跟”的作用。此種現象一直到《翻譯老乞大》、《老乞大新釋》(1960年)仍然沒有變化。“間”作介詞之用，為近代漢語裏的普遍現象。

《原本老乞大》裏“從”字做表示動作發生的場所(地點)，與同介詞“在”的用法。此種用法仍然在《翻譯老乞大》、《老乞大新釋》裏看到。“從”作介詞“在”的用例已在漢代出現，而在元明以後逐漸減少，到現代漢語有所消滅。

“從頭”一詞有“從最初做起”、“逐一”、“全部”、“仔細”等的多意。而“客人”一詞也作“旅客”、“行商”、“客商”等之用。但在古之諺解或近來的一些翻譯裏，疏忽“從頭”、“客人”一詞之廣義作用。

“商量”在近代漢語裏，有“策劃”、“購買”、“問價”、“考慮”等的多種用法，這種用法在《原本老乞大》一書裏有其用例。“敢”字在近代漢語裏，可有“莫非、怕是、敢是”等的推測之意，這種“敢”字的推測用例，在《原本老乞大》也用之。

本稿在我們的東西我們先要掌握與認識，然後可以推廣於他人的原則下，《老乞大》一書中選出“間”、“從”、“從頭”、“客人”、“商量”暨與“敢”等的語彙，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進行考證工作。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 老乞大、老乞大諺解、問、從、從頭、商量、敢、客人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12. 30.	2014. 2. 7.	2014. 2. 17.	2014. 2. 24.	2014. 2. 28.